

# 말씀의 샘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 방주 1 <창세기 6:11~16>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에서는 평양대부흥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30일 한국의 각 교단대표들이 모여 포럼을 가졌었습니다. 침체와 분열로 얼룩진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과 갱신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할 시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 포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의없이 동의하고, 주장했던 공통점은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과 복음은 잃어버리고 과도한 성장주의와 변명신학으로 인해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놓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덩치는 크지만 복음의 구멍이 뚫리고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사람들을 태워도 가라앉는 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방주는 가라앉지 않고 능히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많은 생명들을 능히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세상의 거센 물결이 방주를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목상하면서, 또 오늘날 가라앉고 있는 교회를 비교하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하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가를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 1. 방주를 짓기 위해 전제해야할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곧 멸망한다!”입니다.

방주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믿음도 구원도 필요없게 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없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교회도, 믿음도 교회생활도 구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 6: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에게만 다급하고 두렵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은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먼 얘기 같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으면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란노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뜻을 준비를 간절히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마음일 때 방주는 시작됩니다. 방주생활, 교회생활은 더욱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족보를 연구하다보면 에녹이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올라간 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아버지 라멕은 실제 경험했고 어릴때부터 노아는 그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므두셀라의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신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미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녹이 받은 계시는 한치의 오차없이 이뤄졌습니다. 므두셀라 969세되던 해는 노아가 600세되던 해였습니다. 므두셀라가 죽던 해에 정확하게 홍수가 터졌습니다. 에녹에게 므두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도 므두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런 시간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곧 멸망한다는 경외심과 믿음은, 방주를 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며 오늘날 교회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에만 몰두하고 염려하고 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다 이방인들, 방주밖의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곧 멸망한다는 경고하심으로 방주가 지어졌고, 그 방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탄 것처럼, 교회 또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 2. 방주를 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 6: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재료부터, 모양, 크기와 비율까지 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원의 기능을 감당하는 방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도록 책임지시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사람들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돈으로 지어지면 안됩니다.

**창 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38절까지는 성막이 완성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 40:17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8 모세가 성막을 세우**

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며, 강조하고 싶다는 하나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주도, 성막도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지도록 감독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보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인 성경대로 세워져가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출 39:4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진 성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을 다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출 40: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을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세워져서 구원의 기능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 결론을 지으며 정리합니다.

첫째,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관을 갖길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두렵게 느낄 때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두기 시작할 때 구원의 방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생활은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예”, “아멘”하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의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두란노 교회가 말씀대로 함께 세워져 가는데 노력해야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똑똑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함께 사랑으로 지어갈 때 교회의 방주는 세상의 파도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능히 보호하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넉넉히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과 두란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 2015. 8. 23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성 경 봉 독 ----- 창세기 6:11~16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 방주 2”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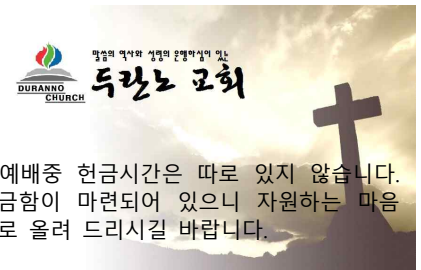
교제의 시간

## 예 배 아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